



K리그 클래식 스플릿 그룹A 2~5위는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각 팀은 최정에 멤버를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8일 인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FC서울전도 역시 치열했다.

스플릿 그룹A 3위권 진입 '올인'

사커 톱픽

2~5위 혼전...3위까지 챔피언십 출전권 마음 비운 6위 제주, 순위 싸움 최대 변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는 스플릿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상위 6개 팀이 경쟁하는 그룹A에선 1위 전북현대(승점 68)와 2위 수원삼성(승점 60)의 간격이 여전히 승점 8점이다. 전북의 우세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2위부터 5위까지는 접미경이다. 이에 따른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2~3위에게는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위 수원부터 4위 FC서울(승점 57)의 격차가 불과 3점이다. 수원, 포항(3위·승점 59), 서울은 한 경기 승패에 따라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5위 성남FC(승점 54)도 남은 4경기 성적에 따라선 얼마든지 3위 이내로 진입할 수 있다.

●체력 걱정, 잠시 접어두자!

스플릿 라운드 전까지 각 팀은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면서 선수 기용폭을 넓게 유지했다. 특히 올해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던 팀들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느라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또 시즌 중반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 이들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팀들도 있었다. 그러나 스플릿 라운드는 올 시즌 성적과 더불어 내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려있는 진검승부다. 이제 테스트는 없다. 체력 관리도 잠시 접어둬야 할 때다.

성남 김학범(55) 감독은 "스플릿 라운드는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 포메이션의 변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아마도 각 팀 라인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매 경기를 최정에 전력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짝짝 놀랄 만한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테스트를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최용수(42) 감독의 생각도 마찬가지. 최 감독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시기지만, 올 시즌(K리그는) 4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후반에 선수를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정에 멤버들을

투입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순위 다툼에서 한 번 밀리면 계속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한 경기만 잘못 돼도 견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 비운 제주, 태풍의 눈으로!

그룹A행 막차를 탄 6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49)가 오히려 마음 편하다. 3위 포항과 승점 차가 10점이나 나기 때문에 3위 진입도 쉽지 않다. 제주의 목표는 '매 경기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는 것'이다. 2~5위에 비해 승패 부담이 적다. 이는 34라운드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제주는 18일 수원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제주에 발목을 잡힌 수원은 사실상 우승의 꿈을 접는 동시에 3위권 팀들의 추격에 시달리게 됐다. 김학범 감독은 "제주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공격력이 좋은 팀이어서 위협적이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제주 조성환(45) 감독은 "다 큰 팀의 희생양이 될 생각은 없다. 전승을 거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내달 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 수원서 개최
대한축구협회는 11월 12일 예정된 미얀마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G조 5차전 홈경기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8시, 대표팀 명단은 다음달 2일 발표되며, 선수들은 9일 소집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미얀마전을 마친 뒤 라오스 원정경기에서 나선다. 라오스전은 한국시간으로 11월 17일 오후 9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신태용호, 내달 중국 4개국 친선대회 출전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올림픽대표팀이 다음달 중국 우한에서 펼쳐지는 4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한다. 선수 명단은 11월 2일 발표되고, 선수들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된 뒤 곧바로 출국한다. 중국 4개국 친선대회에는 홈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모로코, 콜롬비아의 올림픽 대표팀이 참가한다. 올림픽대표팀은 11월 11일 모로코, 13일 콜롬비아, 15일 중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U-17 최재영, 십자인대 파열로 대회 마감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17세 이하) 칠레월드컵에 출전한 수비수 최재영(17·포항제철고)이 십자인대 파열로 중도 귀국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최재영이 오른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잔여경기 출전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최재영은 18일(한국시간) 브라질과의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선발출전했지만 부상으로 전반 종료 후 교체됐다. 이미 대회가 개막해 대체 발탁은 불가능하다.

FC서울 '철인용병' 오스마르의 매력

전 경기 풀타임 출전 진기록 4경기 남아 최용수 감독 "경고 없이도 안정적 수비"



FC서울 오스마르 바르바(27·스페인)는 올 시즌 최고의 '철인'이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에서 34라운드 전 경기를 소화했다. 심지어 교체도 없었다. 34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이다. 오스마르가 스플릿 라운드 남은 4경기를 모두 뒀다면 '전 경기 풀타임 출전'이라는 진기록을 세운다. K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전 경기 풀타임으로 활약한 선수는 2007년 성남에서 뛰었던 장학영과 김영철(이상 29경기)이 마지막이다. 승강제가 실시된 이후 '전 경기 풀타임 출전'은 오스마르가 처음이다.

서울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오스마르는 안정적 수비는 물론 경기 조율까지 책임지고 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우리 팀에 없어서 안 될 선수"라고 오스마르의 존재감을 표현했다. 이어 "오스마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팀을 위해 잘 버텨주고 있다. 정말 좋은 선수다"고 칭찬했다.

오스마르는 전 경기 풀타임 출전 외에 또 다른 진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바로 '무(無) 경고'다.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팀 수비의 핵심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전시간을 기록 중이면서도 올 시즌 심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옐로카드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스마르가 뽀샤

FC서울 수비형 미드필더 오스마르는 올 시즌 전 경기 풀타임 출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철인이다. 그는 FC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선수다. 스포츠동아DB

움을 끼리는 것도 아니다. 그는 가장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선수 중 한명이다. 최 감독은 "경고 없이 안정적 수비를 펼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스스로 경고 받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 심판이 어떤 상황에서 경고를 주는지 인지하고 있다. 어떤 선수보다도 순간적 상황 판단 능력이 좋은 것 같다. 영리한 선수다"며 호평했다.

정지욱 기자

박태하의 엔벤FC, 슈퍼리그 승격 '열 달의 기적'

남은 경기 결과 상관없이 1부리그행 확정

박태하(47·사천) 감독이 이끄는 중국프로축구 갑(甲·2부)리그 엔벤FC가 2016시즌 슈퍼리그(1부) 승격을 일궜다.

엔벤은 18일 우한 쥐얼과의 정규리그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겨 16승10무2패(승점 58)로 선두를 지키는 한편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슈퍼리그행을 확정했다. 엔벤은 이로써 슈퍼리그 출전에 앞서 갑A(1부)·갑B(2부)로 나뉜 시절인 2000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최상위 무대에 오르게 됐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다. 지난해 12월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의 당초 목표는 "10위권 진입"이었다. 일단 버티는 것이 급선무였다. 뿌리 깊은 패배의식도 털어내야 했다. 지난 시즌 엔벤은 최하위로 을(乙·3부)리그 강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승격 예정팀이 선수단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징계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갑리그에 잔류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용병 수급 등 팀 구성도 제대로 못한 채 맞은 시즌이었지만 놀라운 행보를 거듭했다. 21라운드까지 무패행진(13승8무)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 불행한 어린 시절을 거친 엔벤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도록 최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였다. 박 감독은 "처음 이곳에 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제정신이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한다. 지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가 지금을 만들었다"며 감격해했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삼성에서 임대됐다가 8월 완전이적한 하태균(28)도 큰 공을 세웠다. "중국축구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박 감독이 공명하며 영입한 그는 정규리그 23골(FA컵 포함 24골)로 슈퍼리그 승격의 주역이 됐다. 하태균은 "행복하다. 이제야 축구의 묘미를 알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엔벤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엔벤은 24일 후남 상도와의 29라운드 홈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눈부신 성과에 엔벤 구단은 1년 계약을 한 박 감독과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미 몇몇 K리그 구단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았던 박 감독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고희일 기자 coo@donga.com

겨울 기모 반목 플라 티셔츠~ 이거 하나면 올 겨울 끝!
후끈후끈 겨울용 반목티셔츠 5종 49,800원



겨울철 일상생활은 물론 등산·낚시·골프·사이클 등 레저활동에 안성맞춤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반목 플라 기모 티셔츠는 겨울철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 안감 기술을 일한 겨울용 반목 플라 티셔츠는 겨울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난로를 품고 다니는 듯 한 놀라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겨울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 유지를 도와준다. 기모 반목 플라 티셔츠는 단독 출시 기념으로 5종 세트를 특별 가격 행사를 한다.

사이즈 95, 100, 105
색상 블루, 와인, 네이비, 카키, 블랙
겨울용 반목티셔츠 5종 세트
₩208,000 → ₩4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재)

입는 듯 안입는 듯 고밀도 압축기술의 집약체! 겨울철 베스트 아이템
지금 꼭 필요한 스코니 퀼팅점퍼! 1+1 49,800원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두루 겸비한 점퍼

2015년 최신트렌드 퀼팅점퍼는 겨울에는 두꺼운 점퍼 안에 입지만 간절기에는 점퍼대용으로 많이 입는다. 입는 듯 안입는 듯 매우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촉감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누빔 처리된 세련미와 견고하고 깔끔한 지퍼 처리는 어느 브랜드와 비교해도 과연 으뜸일 것이다. 코디 쉽고 보온력 우수 찬바람은 막아주며, 어떤 하의와의 코디도 완벽하게 연출하는 퀼팅점퍼를 착용해 조석으로의 기온차를 극복해보자. 제품 불만족시 입주일 이내 100%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퀼팅점퍼 1+1 ₩196,000 → ₩4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플룩스(이상재)